

전남 해안 타르 덩어리 '초비상'

영광·무안·신안·진도까지 확산 200여t 수거 갯벌에 흡수된 생태계 치명적...근본 대책 필요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기름 찌꺼기)가 사고 발생 한 달도 채 못돼 전남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서해 연안 및 수산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지 르포 7면>

타르 덩어리가 강한 바람과 조류를 타고 영광·무안·신안을 거쳐 진도 해역까지 유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는 등 타르 덩어리 제거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 연안은 모래 위주인 태안 이어 진도군 지산면 세포리·조도면 관매·관사·외병·내병·가사도 인근 해안에도 지난 1일부터 지름 2~5cm 크기의 타르 덩어리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는 충남 태안에서 직선거리로 300km 쯤 떨어졌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은 이날까지 공무원 등 연인원 8천700명을 투입, 해안가에서 타르 덩어리 제거작업을

벌여 현재까지 모두 211.62t을 수거했다.

지역별로는 신안지역이 124.6t으로 가장 많았고 ▲무안 45.97t ▲영광 35.15t ▲진도 5.9t 등이다.

하지만, 이날 풍랑주의보 발효로

해상의 파도가 2~3m에 이르고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상 방제는 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리' 기간인 오는 7~9일 이전까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국제기름오염보상기금 및 보험회사(노르웨이 스킵드)가 지정한 피해조사 전문가인 '한국해사감정'이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벌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산 양식장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파도가 잔잔해진 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양식장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전남 해안의 갯벌에 침투되는 것을 막고, 양식장 피해를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우선적으로 해안에 밀려든 타르 덩어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해안 전역으로 밀려들고 있다. 2일 전남도·무안군 공무원과 주민 250여명이 무안군 해저면 송석리 송계마을 해변까지 유입된 타르 덩어리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社告

'테마칼럼'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금요일 인가칼럼인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뀝니다. 문학, 금융, 디자인, 교육 등 4개 테마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성만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최영미 시인 오수상 지원장 이만경 교수 이지현 교수

◇최영미 시인
▲서울대 서양학과 졸업 ▲창작과비평 시 '속초에서' 등단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꿈의 폐달을 밟고', 장편소설 '홍터와 무늬' ▲2006년 이수문학상 수상

◇오수상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고려대 수학교육과 졸 ▲미 Ball State Univ. 보훈수리학 석사 ▲보험감독원 생명보험과장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런던사무소, 보험검사 2국 검사기획팀장

◇이만경 광주여대 교수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졸업 ▲서울대 미술대학원 디자인학부 박사 과정 ▲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전남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이지현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전남대 교육학과 졸업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영국 런던대·키일대 연구교수 ▲전남대 교육대학원 부원장, 교육발전연구원장

光州日報社

대입 선발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통령직 인수위, 특목고 지정 등 시·도교육청에 이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인수위는 또 초·중·고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과 교원 정원·임용·인사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

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종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 관련 업무는 2월 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단계 대입자율화"를 포함한 대학입시 개선방안 등을 확정하

고 이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대학자율화 방안 1단계는 학생부와 수능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축소하며, 3단계에서는 대학이 자율로 학생을 선 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또 교원 신분과 관련,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토록 했다.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부 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인사 문제인 만큼 당장 실현이 어려운 만큼 단계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했으나 인수위는 "3월까지 가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말고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 20년만에 정이사 체제

사학분쟁조정위에 후보 10명 명단 제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용재)가 1988년 임시이사 체제 이후 20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돌아선다.

조선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8명의 후보와 당연직인 전호중 총장 및 총동창회 신홍수 수석부회장 등 10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6명

(공모직 4명·당연직 2명)을 최종 선임하고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받으면 본격적인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사회는 또 3명의 개방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게 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 이상렬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재규 조선대 직원노조 위원장 등 조선대 대학평의회 추천 4명, 박만석 법인 사무처장 등 법인 추천 5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기업 등에서 추천받은

개방이사 후보들을 심의, 2배수로 좁히게 된다.

당초 조선대는 현재 재직 중인 7명의 임시 이사 중 5명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3월을 정이사 체제 출범일로 잡았으나, 사학분쟁조정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임정이 늦춰지게 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